



## 미국 : 전미자동차노조 위원장, 스텔란티스 벨버디어 공장 휴업 결정에 대한 발언<sup>1)</sup>

전미자동차노조(UAW) 손 페인 위원장이 스텔란티스 벨버디어 공장 휴업 결정에 관하여 입을 열었다. 스텔란티스는 지난 2023년 2월 전기차 생산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이 공장을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물량들은 다른 주에 있는 기존 공장들로 분배된다.

2023년 4월 21일, 페인 위원장은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조립공장과 배터리 공장에 대해 무노조 전략을 세우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스텔란티스가 일리노이 주

벨버디어에 있는 완성차 조립 공장을 유휴 상태로 놓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UAW와 회사가 맺은 계약이 “완전한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가올 스텔란티스, 포드, 제너럴 모터스와 의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포드가 테네시의 블루 오발 시티에 조성하고 있는 전기차 제조 단지에 고용될 1만 1,000명의 노동자들 역시 UAW에 소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Reuters, “UAW President: ‘No Excuse’ for Detroit’s Non-union EV Operations”, 2023.4.21.

## 미국 : 미시간 대학 대학원생 노조, 행정청으로부터 파업 중단 권고<sup>1)</sup>

미시간 대학에서 파업 중인 대학원생 강사와 직원 2천여 명은 지난 2023년 3월 노동자들이 직장 무단이탈이라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행정법 판사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시간 대학에서 발생한 파업은 대학원생 노조가 이끈 가장 긴 파업 중 하나이다.

2023년 3월 29일, 미시간 주 행정청의 데이비드 펠츠 행정법 판사는 미시간 대학이 노동자들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

은 결정을 내렸다. 펠츠 판사는 대학원생 노동자 조직(Graduate Employee Organization, GEO)이 파업 금지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조속히 파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GEO는 대학 운영에 대한 간섭을 유발하거나 선동, 지원 또는 장려하는 것을 자제할 의무가 있다. GEO 활동가인 아미르 플레이슈만 박사후보생은 해당 결정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 The Detroit News, “Administrative Law Judge Rules Striking UM Grad Assistants Committed Unfair Labor Practice”, 2023.4.18.



## 미국 : 퀵 서비스 식당 노조 조직화 급증 원인<sup>1)</sup>

최근 미국 노동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식업 종사자의 1.4%가 노조에 가입했다. 요식업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노조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노조 조직활동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다. NLRB의 통계에 따르면 노조 선거 청원은 2021년 30건 미만에서 2022년 450건으로 급증했으며 이미 2023년 1분기에만 50건이 넘는 청원이 접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실시한 380여 건의 선거에서 약 80% 정도에서 노조가 승리를 거두었다.

요식업 업종 내에서도 주목할 것은 바로 “퀵 서비스” 식당(Quick serve restaurants, QSR)이다. 노조 선거 청원 중 QSR로부터 접수된 건은 2020년 4건에서 2022년에 419건으로 급증했다. 이 중 압도적 다수는 커피숍이었다. 이러한 트렌드가 외식업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크다.

QSR에서 조직활동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해당 산업에 주로 젊은 세대, 즉 Z세대가 종사한다는 점이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Z세대는 노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려 64.3%가 노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및 기타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에 능숙하다. 또한 임금 및 노동조건을 넘어 더 광범위한 직장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데, 일터 안전, 인종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QSR의 조직활동이 활발한 데에는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2021년 기준 패스트푸드점 요리사의 평균 연봉은 2만 5,430달러인 반면, 일반 식당 요리사의 평균 연봉은 3만 1,380달러라고 보고했다.

1) National Law Review, “Labor Trends in Restaurant Industry: How QSRs and Gen Z are Impacting Employee Activism”, 2023.4.20.

## 미국 : 백악관의 줄리 수 노동부 장관 지명, 위기를 맞다

백악관의 줄리 수 연방노동부 장관 지명이 난관에 부딪혔다.<sup>1)</sup> 민주당 소속 조 맨친 3세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줄리 수 지명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고, 무소속(전 민주당 소속) 키어스틴 시너마 애리조나 상원의원 역시 확실한 지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중 49명

이 공화당, 48명이 민주당, 3명이 무소속인 것을 고려하면, 한두 명의 민주당 의원만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해도 노동부장관 인준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인준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이견을 갖는 이유는 재선 전망이 불투명한 지역의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점이 꼽힌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IFA) 등 경영계는 줄리 수의 정책이 중소기업 및 프랜차이즈에 피해를 입혔다며 지명을 반대하는 로비를 벌였고, 상원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8명은 청문회 출석 이전 줄리 수와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실패했다며 실망스럽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 에밀리 R. 사이먼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수 지명자의 성공적인 인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티 윌시 전 노동부 장관 역시 노동부 차관으로서 수가 보여준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지지했다. 버니 샌더스 버몬트 상원의원 역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줄리 수는 캘리포니아 노동장관으로 7년간 재직하면서 임금착취 등 노동문제에 직면한 이민자 및

저임금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며 명성을 얻었고, 독립계약자를 노동자로 분류하는 법안을 설계하는 데도 영향을 미쳐 우버 등의 기업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상원의 건강·교육·노동·연금위원회는 4월 20일 노동부 장관 인준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는데, 이날 독립계약자 분류 기준 강화 법안인 캘리포니아 주법 AB5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sup>2)</sup>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깃(gig) 경제를 해체하고 독립계약자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수가 이 법안의 최고 집행자였다고 공격했다. 수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시행한 것뿐이라며 노동부 장관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 1) The Washington Post, "Nomination for U.S. Labor Department Secretary in Jeopardy", 2023.4.13.
- 2) Land Line, "Julie Su Opponents Point to AB5 Connection", 2023.4.20.

## 미국 : 할리우드 작가 노조, 파업에 돌입

수천 명의 TV 및 영화 작가를 대표하는 미국작가조합(WGA)이 9천 명 이상의 작가 중 98%의 찬성으로 파업승인을 얻어냈다고 밝힌 후,<sup>1)</sup> 결국 5월 2일 파업에 돌입했다.<sup>2)</sup> 하지만 양측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다. 5월 7일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파업 시작 이래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WGA는 이 파업이 여름까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암시했다. 노조 협상위원회는 스튜디오 측이

요구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sup>3)</sup> 한편 할리우드 제작사를 대표하여 교섭 중인 영화·TV제작자연합은 노조가 파업 투표를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기에 파업 투표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노조 측이 진지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할리우드 경영진은 파업에 대비하여 대본을 미리 확보해두거나 대본작가가 필요 없는 리얼리티 시리즈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WGA 측은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 TV 시리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지난 10년간 그에 대한 보상 수준이 정체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이번 협상을 작가들의 생존을 건 싸움이라고 명명했다. 베테랑 작가 겸 프로듀서이자 WGA 협상단 위원인 에릭 헤이우드는 “작가들이 더 적은 돈을 받고 더 많이 일하고 있다. 베테랑 작가임에도 몇년 전과 비교해 같거나 적은 수준의 돈을 받고 일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 시기가 업계의 재정적 불황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더욱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다.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그에 따라 여러 스튜디오가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감원 조치를 진행 중이다.

WGA는 최저급여 인상, 스트리밍 재방송 수익금 증액, 건강 및 연금에 대한 사측의 기여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sup>4)</sup> 그 외에도 작가들은 스튜디오의 불합리한 관행에 맞서고 있는데, 특히 “미니룸

(minirooms)”이 대표적이다.<sup>5)</sup> 통상 스튜디오는 프로그램을 채택해 방송하기 전에 미니룸을 소집하는데, 소규모 작가들이 모여 수개월에 걸쳐 시리즈를 개발하고 대본을 작성한다. 그러나 미니룸 방식에 따르면 스튜디오가 정식으로 시리즈를 주문한 것은 아니기에 작가들은 작가실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작가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노조 측은 스튜디오가 미니룸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작가들에게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작가들은 기존 수입원 중 하나였던 재방송 저작권료가 스트리밍 방식으로 인해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전에는 배급, 국제계약, DVD 판매 등 프로그램 저작권 판매가 있을 때마다 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받았는데, 스트리밍 시대에 들어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이 시리즈 라이선스를 꺼리게 되면서 이 저작권료가 고정액으로 바뀌었고, 작가들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 1) The New York Times, “Hollywood Writers Approve of Strike as Shutdown Looms”, 2023.4.17.
- 2) CNN, “No End in Sight for the Writers Strike as Talks Break off and Both Sides Brace for Long Standoff”, 2023.5.7.
- 3) The New York Times, “Hollywood Writers Approve of Strike as Shutdown Looms”, 2023.4.17.
- 4) NPR, “‘We’re Just at a Breaking Point’: Hollywood Writers Vote to Authorize Strike”, 2023.4.17.
- 5) The New York Times, “Hollywood Writers Approve of Strike as Shutdown Looms”, 2023.4.17.

**독일 : 금속노조, 철강업계 단체교섭에서 주 4일제 도입 요구하겠다고 밝혀**

독일 금속노조(IG Metall)가 수개월 후 진행될 철강업계 단체교섭에서 주간 노동일수를 4일로, 주

당 노동시간은 현재의 35시간에서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북서부 지역 철강업계<sup>1)</sup>의 임금협상을 위한 것으로 해당지역 노조는 이를 성공적으로 관철하여 다른 지역들의 선례가 되고자 한다. 현재 산별협약에서 규정하는 북서부 철강업계의 보상체계는 202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된다.<sup>2)</sup>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금속노조의 크누트 기즐러 협상위원장은 주 4일제가 동일임금 보장을 전제로 도입되어야 한다면, 노조는 임금감소 없이 노동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sup>3)</sup> 그는 이번 요구안이 철강 노동자의 삶의 질과 건강에 비약적인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주 4일제 모델이 업계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을 높여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손실 위험도 감소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sup>4)</sup>

독일에서 노동계의 주 4일제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특히 1990년대 초 통일 이후 실업률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된 바 있다. 최근 들어 주 4일제가 다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 도입과 정착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즐러 협상위원장 또한 사용자가 이번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부분적으로 수년에 달하는 적응기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특히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았다.<sup>5)</sup>

1)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니더작센, 헤센과 브레멘 주가 포함된다.

2) Tagesschau, "Was bringt die Vier-Tage-Woche", 2023.4.6.

3) 이 안은 100%의 생산성을 80%의 노동으로 달성하여 100%의 임금을 수령한다는 소위 "100-80-100" 모델에 기반한다.

4) WAZ, "IG-Metall will die Vier-Tage-Woche im Stahl durchsetzen", 2023.4.5.

5) Spiegel, "IG-Metall-Verhandler will Viertagewoche durchsetzen", 2023.4.5.

## 독일 : 공공서비스 부문, 총파업 후 중재절차 통해 임금협상 타결

독일 내 급격한 물가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해 노사 간 임금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방 및 주의 공공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약 25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공공서비스노조(ver.di)는 제 3차 협상기간 중인 3월 27일 하루 동안 독일 전역의 교통 및 기간서비스 분야에서 총파업을 전개하

여 사용자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sup>1)</sup> 이 파업에는 제 1차 단체교섭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철도·교통노조(EVG)도 참여하여 철도 및 항공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ver.di의 요구안은 월 최소 인상금액을 500유로로 하는 10.5%의 임금인상이다. 임금협상의 결과



는 공무원, 판사, 군인, 공무원 연금수령자 등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사측은 월 최소 인상금액을 300유로로 하는 8% 임금 인상 및 3천 유로의 일시금 지급을 제안했다.<sup>2)</sup> 그러나 노사는 협상 기간 중 절충안을 찾지 못했고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중재위원회에 회부되었다.<sup>3)</sup>

중재위원회는 임금인상 적용기간을 2023년 1월부터 24개월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는데,<sup>4)</sup> 2024년 2월까지 총 3천 유로의 일시금을 비과세로 분할 지급하고, 2024년 3월부터 월 200유로의 고정금액

(Sockelbetrag)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며 여기에 월 최소 인상금액을 340유로로 하는 5.5%의 임금인상을 추가하는 안이다.<sup>5)</sup> 노사는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 위 중재안을 기본으로 하는 합의에 도달했다. 노조는 임금협상 결과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며 2024년 3월부터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11% 이상,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최고 16.9%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사측은 임금인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이 확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sup>6)</sup>

- 1) Tagesschau, "Eine neue Ära heftiger Streiks?", 2023.3.27.
- 2) Tagesschau, "Wie geht es im Streit weiter?", 2023.3.30.
- 3) 노조는 협상결렬에 대해 사측과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며, 사측이 실질적인 사회적 정의를 향한 첫 걸음을 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측은 임금인상분 자체보다 임금인상분에 적용되는 세금 문제에 대한 이견이 컸다고 밝혔다.
- 4) Tagesschau, "Schlichter legen Empfehlung vor", 2023.4.15.
- 5) 임금협약에서 "Sockelbetrag"은 백분율 인상과 별도로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고정금액을 가리키며 이 경우 임금인상은 "x유로 + y%"형태로 이루어진다.
- 6) Tagesschau, "Tarifparteien einigen sich", 2023.4.23.

### 영국 : 실업률 소폭 상승 ... 하지만 실질소득은 감소

2023년 4월 18일 영국 통계청이 발간한 4월 노동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실업률은 0.1%p 증가한 3.8%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2분기 이후 최고치이다. 해당 실업률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제학자들은 실업률이 단기간에 증가하지 않고 3.7%의 수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상승했다.<sup>1)</sup>

통계청 보고서 발표 이후,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경제 전망이 영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했다고 분석하였다.<sup>2)</sup>

경제 불확실성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4%였다. 상여금을 제외한 정기 급여는 2023년 2월 6.6% 증가했지만 CPI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오히려 3.4%

가 감소한 수치이다. 상여금을 포함한 총소득 또한 2023년 2월 5.9%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CPI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오히려 4.1%가 감소하였다. 영국 통계청 대런 모건 경제통계국장은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느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여전히 감소추세에 있다.”라고 밝혔

다.<sup>3)</sup> 영국 재무부 제레미 헌트 장관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엄청난 물가상승률은 파업, 실질소득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 Investment Week, “UK Unemployment Rate Rises Faster than Expected”, 2023.4.18.

2) Yahoo, “UK Unemployment Rate Rises and Vacancies Fall Again as Jobs Market Falters”, 2023.4.18.

3) ONS, “Labour Market Overview, UK: April 2023”, 2023. 4.18.

## 영국 : 보건부문 파업 지속으로 혼란 지속

2023년 2월부터 보건부문에서 잦은 파업이 발생했다. 간호사 노조(RCN)와 구급차 노동자들이 다수 속한 GMB 노조, 수련의들도 대규모 파업을 감행했다. 파업이 지속되자 2023년 3월 26일 영국 정부는 보건노조와 파업 종단을 위한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협상 합의안이 발표되자 노조원들은 임금협상 결과에 반대하며 더 나은 임금인상을 위해 다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후 간호사 노조는 4월 30일 오후 8시부터 4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을 감행하는 이유는 3월 26일 발표된 정부의 협상 합의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부문 내 혼란은 간호사 노조뿐만 아니라 수련의 파업으로도 가중되었다. 약 4만 7천 명의 수련의는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수련의들이 파업을 감행한 주된 이유는 급여 인상과 연관되어 있다. 실

제로 수련의들은 2023년 3월에도 35% 급여 인상을 골자로 파업을 진행했었지만 정부가 “(이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협상을 거부했다.<sup>1)</sup>

이 파업으로 인하여 19만 6천 건 이상의 병원 진료가 취소되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 급여 분쟁으로 발생한 진료 취소 건수는 2023년 4월에 가장 많았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의 입장은 3월과 같다. 영국 보건부 스티브 바클레이 장관은 협상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35%의 임금상승은 비현실적 요구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가 해당 요구를 잠정적으로 철회하면 현실적인 임금 협상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부문 내 노조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up>2)</sup>



- 1) Metro, “All Strikes Planned for April 2023 – from Teachers to Passport Staff”, 2023.4.16.
- 2) BBC, “Junior Doctor Strike Led to 196,000 Cancellations”, 2023.4.18.

### 프랑스 : 연금 개혁안 합헌 결정, 법률안 공포되며 공식 절차 마무리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2023년 4월 14일 법정 은퇴 연령 64세 상향 등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sup>1)</sup> 이어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안을 공포하며 사실상 법제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sup>2)</sup>

다만 헌법위원회는 일부 내용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고령층 고용 지표(Index senior)”와 관련된 안건을 부결했다. 이는 1,000명 이상의 피고용인을 둔 기업에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은퇴 시점에 도래한 노동자 비율 등 관련 지표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 등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해당 조항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결국 이 안

건을 제외했다. 또한 상원에서 추가한 이른바 “고령층 정규 계약직(CDI senior)” 제도도 누락되었다. 이는 고령층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60세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정규 계약직제로 최대 70세까지 노동계약을 가능케 한다. 이 안건 역시 헌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어 연금 개혁안 법제화 과정에서 위헌 요소가 없었다며, 국회 좌파진영 중심으로 제기한 은퇴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동발의 국민투표도 부결했다. 헌법위원회는 5월 3일 국회에서 제출한 두 번째 국민투표 발의안도 기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금 개혁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 1) Franceinfo, “Dé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réforme des retraites : les Sages valident le report de l’âge de départ à 64 ans, mais retoquent l’index et le CDI seniors”, 2023.4.14.
- 2) France Bleu, “Réforme des retraites : la loi officiellement promulguée par Emmanuel Macron”, 2023.4.15.

### 프랑스 : 마크롱 대통령, 향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분야 꼽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3년 4월 17일에 진행한 대국민 담화에서 연금 개혁 이후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룰 안건으로 노동분야와 불법이민 통제강

화 및 공화국 질서 재확립, 삶의 질 향상을 꼽았다. 이 중 노동분야를 첫 번째 과제로 명시하며 향후 이와 관련해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명시했다.<sup>1)</sup>



또한 이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환경에 관한 새로운 합의(nouveau pacte de la vie au travail)”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 관계자들과 부의 재분배, 직종의 변경, 고령층 고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 시스템 개혁 등도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의 합의의 논의 과정에서 고령자 고용 문제

가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sup>2)</sup> 연금수령 개시연령 상향조정 등으로 해당 안건의 중요성이 점차 커졌기 때문이다. 고령자 고용 촉진 목적으로 연금 개혁안에 포함됐던 “고령층 고용 지표”와 “고령층 정규 계약직제”가 헌법위원회 결정으로 폐기되면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주4일제와 임금인상안 등 노동환경 개선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1) Le Figaro, “Réforme des retraites, travail, ordre républicain... Ce qu'il faut retenir de l'allocation d'Emmanuel Macron”, 2023.4.17.
- 2) Franceinfo, “Salaires, RSA, emploi des seniors... Quels sont les sujets concernés par le “pacte de la vie au travail”, évoqué par Emmanuel Macron lors de son allocution?”, 2023.4.18.

## 프랑스 : 최저임금, 2023년 5월부터 2.19% 인상<sup>1)</sup>

2023년 4월 14일,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5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2.19%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최저 소득 가구 20%에 대한 가장 가격인상을 고려하여 책정되며, 물가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즉시 최저임금의 재평가와 상향조정이 연중에 이루어진다. 최근 국립통계청(INSEE)이 공개한 2023년 3월 물가상승률 추정치에 따르면, 3월 기준 프랑스의 물가상승률은 5.7%에 달했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오는 5월부터 2% 정도 인상률을 적용해 재평가된다. 프랑스 매체 AFP와 노동부는 최저임금이 2.19% 인상될 예정이며, 세후 월 기준 30유로가 인상되어 정규직 급여가 1.383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른 총리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수령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자와 노동자 간 급여 범위의 재협상을 기업에 촉구했다.

한편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정부가 추진한 물가상승 대응책으로 대형마트 및 유통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 구매력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타 EU 회원국과 달리 프랑스가 식품 및 위생용품 가격의 급등을 피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정부의 대응책과 기업의 유통비용 조율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른 총리의 발표는 현장에 위치한 몇몇 시위자들에게 의해 중단되기도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과 이 법안을 의회의 표결 없이 총리 직권으로 발표해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결정에 대한 반발이었다.



1) Le Monde, “Le smic va augmenter de 2,19% au 1er mai du fait de l’inflation, selon le gouvernement”, 2023.4.14.

### 프랑스 : 고용센터, 2023년 노동력 수급 문제 예측<sup>1)</sup>

2023년 4월 7일, 프랑스 고용센터가 공개한 연례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민간기업은 연간 304만 건의 신규 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과 유사한 규모이며,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2022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이뤄진 약 42만 개의 설문조사 응답을 살펴보면, 기업 열 곳 중 세 곳이 신규채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2.8%에 달했던 채용 비율은 2023년에 약 31%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올해 기업의 채용 계획 중 72%가 6개월 이상의 계약직 혹은 정규직 채용이라는 점이다. 정규직 채용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의 대다수는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 및 대기업 채용은 -8.4%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용센터에 따르면, 서비스업 부문 기업의 채용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62%에 달한다. 특히 숙박업 및 요식업의 채용은 2022년 대비 8.3% 증가했고, 약 3만 명의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했다. 다음으로는 포도 및 수목재배 등 계절 노동자의 수요가 높았다. 한편 채용 수요가 높지만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려운 직군에는 약사, 가사도우미 및 수리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판 듀카테즈 고용센터 담당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의 규모를 떠나 동일한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고 밝혔다.

1) Le Monde, “Emploi : les besoins de main-d’œuvre restent très élevés”, 2023.4.7.

### 스페인 : 새로운 연금제도 개편안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정부의 연금제도 개편 시도와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3월 15일 정부와 양대 노총(UGT, CCOO)이 연금제도 개편에 합의했으며, 다음 날 내각회의의 승인을 거쳐 3월 30일 의회를 통과했다.

스페인은 오랫동안 연금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이다. 사회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연금제도 개편의 주요 골자는 연금 기금 확충을 위해 연금 기여액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25년에서 29년으로 확대하며, 최부유층에게

“연대가산세”를 부과하여 연금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개편을 통해 스페인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최저 연금수령액이 20%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부양배우자가 있는 퇴직자의 경우 연간 최저 연금수령액 1만 3,527유로를 지급받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2027년에는 1만 6,500유로로 인상되어 연간 14회에 걸쳐 매월 1,179유로를 받게 된다.<sup>1)</sup> 프랑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연령 변경은 이번 스페인의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인은 이미 2011년 연금제도 개편을 통해 은퇴연령을 65세로 늦춘 바 있다.

호세 루이스 에스 크리바 사회보장·이민부 장관은 개편안 발표 자리에서 제도 개편을 통해 연금수

급자의 소득을 확대하고 공공연금제도의 성별 및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sup>2)</sup> 개편안은 3월 30일 179표의 찬성을 받아 하원을 통과했지만 보수 성향의 복스(Vox), 시민당 및 인민당은 표결에 기권했다.<sup>3)</sup> 이번 개편으로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형태의 사회갈등은 피했지만, 여전히 연금제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경영계와 보수 야당은 새로운 개편안에 비판적이며, 알베르토 누네스 페이주 인민당 대표는 이번 개편안이 “노동과 재능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라며 연말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하면 연금을 다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 1) 20 minutos, “La pensión mínima subirá un 22% en cuatro años y alcanzará los 16.500 euros anuales en 2027, según estima el Gobierno”, 2023.3.15.
- 2) La Moncloa, “El Gobierno aprueba la reforma del sistema público de pensiones y garantiza su poder adquisitivo”, 2023.3.16.
- 3) Cinco Días, “El Congreso aprueba la segunda parte de la reforma de pensiones con los votos del Gobierno y sus socios”, 2023.3.30.

## 스페인 : 15년 만에 실업자 수 최저치

2023년 3월 스페인의 실업자는 전월대비 4만 8,755명 감소한 286만 2,260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sup>1)</sup> 사회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3월 평균 2,037만 6,552명이었고, 3월 30일 기준 총 2,049만 1,656명이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회보험제도가 현재의 형태로 자리잡은 이래 최다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3월은 전통적으로 고용이 활성화되는 달이다. 많은 기업이 스페인의 전통적인 휴가기간인 성 주간(Semana Santa)을 앞두고 몰리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특히 서비스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실업자 감소는 세우타와 마드리드를 제외한 모든 자치주에서 나타났다. 엔리케 오소리오 마



드리드 자치주 교육 및 대학 보좌관에 따르면, 마드리드의 실업자 증가는 마드리드가 취업기회가 많은 곳으로 인식되어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문별 실업자는 서비스 부문에서 4만 2,789명(2.05%)이 감소했고, 건설 부문 3,898명(1.76%) 감소, 제조업 부문 3,419명(1.47%) 감소, 농업 부문 2,648명

(2.28%) 감소로 나타났다.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의 경우 3월 실업자가 171만 8,323명으로 전월대비 2만 5,897명(1.48%)이 줄어들어 최근 15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한 청년의 경우 3월 기준 25세 이하 실업자가 총 21만 5,099명으로 지난 27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sup>2)</sup>

- 1) 3월 실업통계는 다음 링크 참조. <https://www.sepe.es/HomeSepe/que-es-el-sepe/estadisticas/datos-avance/paro.html>
- 2) El País, “El paro cae en marzo en 49.000 personas y la Seguridad Social bate otro récord al alcanzar casi 20,4 millones de cotizantes”, 2023.4.4.

### 일본 : 2024년 대학병원 의사 30%가 과로사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2022년 전국 81개 대학병원 근무실태 조사 결과, 2024년 대학병원 의사 1만 5천 명(전체 대학병원 의사 대비 약 30%)의 시간외 노동이 연 960시간을 웃돌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이는 과로사 기준으로 꼽히는 “월 80시간”을 넘는 수준이다. 일본에서는 업무방식 개혁의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환자를 진료하는 근무의에 대해 휴일 및 시간 외 노동을 연 960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는 장시간 노동이 일반적인 의료 현장에서 의사의 수면시간 감소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대처이다.

다만, 지역의료에 공헌하는 병원 등은 특례로서 연 1,860시간을 상한으로 둘 수 있어, 모든 대학병원이 특례 적용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sup>2)</sup> 이는 의료현장이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즉시 수용하기 어려워 의사의 노동시간을 이전 그대로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료현장의 대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간 단축이 교육·연구의 질 저하나 성과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대학병원 의사 981명에 대한 조사에서 연구의 중심이 되는 “조교” 의사가 연구에 할애하는 시간은 15%가 주 0시간, 약 절반이 1~5시간으로, 교육·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sup>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대학병원은 업무방식 개혁과 병원 기능 유지의 양립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4월 18일 열린 전국의학부장병원장회의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처우 개선과 인력 확보, 업무 이관 및 삭감이 필요

하다고 호소했다.<sup>4)</sup>

- 1) 共同通信, 「大学病院医師、3分の1働き過ぎ 残業休日規制超え、24年度予測」, 2023.4.18.
- 2) 毎日新聞, 「大学病院医師、3分の1が過労死ライン超過 文科省が働き方調査」, 2023.4.18.
- 3) 朝日新聞, 「大学病院の医師3割、残業960時間超の見込み 研究の時間不足」, 2023.4.18.
- 4) 朝日新聞, 「大学病院医師、3割「過労死ライン」 1.5万人、年960時間超の残業見込み 文科省委託調査」, 2023.4.22.

## 일본 : 중도채용 비율 역대 최고치인 37%, 7년 만에 2배로 상승<sup>1)</sup>

일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2023년 채용계획에서 전체 채용 인원 중 중도채용 인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7.6%로 나타났다.<sup>2)</sup> 특히 2023년도 중도채용 계획 인원은 전년대비 24.2%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채용 관행의 변화는 일본의 생산연령 인구 감소 때문이다. 특히 비제조업에서는 중도채용 비중이 전체 채용의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호텔·여행업(390%), 철도·버스(94.7%) 등에서 중도채용 비중이 크게 늘었다. 해당 업계에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채용계획을 강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채용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린스 호텔은

직원들의 동문 네트워크 활용 및 퇴사 후 10년 이내 동일 직종·직급으로 복귀 제도를, 로얄 홀딩스는 아르바이트생을 정직원으로 승진시키는 채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시점에서 대면 업무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구인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업이 계획에 맞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199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30년에는 2022년 대비 7% 감소한 6,875만 명으로 정점의 80%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 1) 日本經濟新聞, 「中途採用比率が最高37% 7年で2倍に、23年度計画」, 2023.4.19.
- 2) 일본 고용시스템은 종신고용, 연공서열, 기업별 노조, 신규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신규채용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인력들을 일률적으로 채용해서 기업들이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 인구의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종신고용 관행의 균열에 따라서 기존의 고용시스템이 변용을 겪고 있으며, 채용방식도 기존의 신규채용에서 경력직을 위주로 한 중도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